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11호

ISSN : 2384-4280(Print)

가정적 요인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경찰의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

김상수

To cite this article : 김상수 (2020) 가정적 요인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11, 141-166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 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

가정적 요인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김 상 수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가정적 요인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김 상 수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해마다 증가는 학교폭력의 실태와 현황들을 고찰하고, 가정적 요인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예방책을 제시하였다.

가정환경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부모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가정에서의 바른 언어습관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직장 내 학교폭력예방 교육 프로그램 도입, 경찰의 체험형 교육으로의 개선과 학교폭력의 문제의 처리에 있어 절차상 공정성이 강화하는 방안 마련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교육적 대안과 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폭력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학교전담경찰관의 근무년수 강화 및 시험제도의 개선을 비롯하여 인력증원, 학교전담경찰 업무의 행동지침 매뉴얼 제정, 학교폭력 가해자 처리시 경찰에게 수사종결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 경찰관 경력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의 경우 비행 등 범죄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에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자주 바뀌는 인사이동으로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주제어: 학교폭력, 청소년폭력, 학교폭력 영향요인, 학교폭력 실태, 학교폭력예방

* 오산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제1저자)

목 차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학교폭력 실태 및 가정적 요인 분석
- IV. 가정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
- V. 결 론

I. 서 론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등장한 이후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후로도 몇 차례 관련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치안정책연구소, 2019: 137).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의 문제는 1990년대 사회문제로 주목받기 시작한 이후 2019년 현재에는 학교폭력의 저 연령화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폭력성이 심각한 문제로 잔인화, 다양화 되어지고 있다(이승권, 김하영, 2019).

학교폭력의 양상은 시대의 변화로 더욱 복잡해지고 그 행위와 유형은 날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관련 법률과 개정안으로 학교폭력 유형은 폭행, 협박, 따돌림으로 3가지였으나, 2008년 개정된 법률에서는 추가된 사항이 감금, 상해, 감금, 약취, 유인, 공갈, 명예훼손 또는 모욕, 강요,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과 폭력 정보 등에 의한 피해 행위와 유형이다. 관련 법률 개정으로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행위와 유형이 추가해 온 현상은 학교폭력의 성향과 양상이 점점 확대되어 다양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치안정책연구소, 2019).

청소년기에 직접적인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지위비행, 재산비행, 폭력비행 등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줬다. 즉, 청소년시기에 직접적으로 폭력을 경험하면 할수록 비행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줬고,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경험한 경우에 불안감이 증가한다(김미선, 곽대경, 2017).

학교폭력이 발생으로 인해 가정을 비롯한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더 나아가 크게는 국가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어 이는 안전한 사회 구축을 지향하는 국가 정책요소의 장으로 등장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발생요인과 예방하는 것은 안전사회 구축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긍정적인 환경 유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잠재적인 피해자 및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유순덕, 2018; 이대권, 엄유진, 김신혜, 2020).

학교폭력은 현대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학교폭력은 시대의 변화로 폭력성과 잔인성에 있어 심각한 수준까지 증가하고 실정에 있다. 또한 갈수록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도 저연령화되고 있고, 학교의 문제를 넘어서 현대사회의 커다란 사회문제로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이정관, 2017).

최근까지도 학교폭력의 원인에 있어서 가정의 구조적·기능적 요인은 청소년 비행 문제의 근본원인으로 다루고 있으나 가정 내 원인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개입은 여전히 여러가지의 문제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학교폭력 예방과 교화를 위한 완전한 해결방안을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원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고 나아가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에 대한 가정 내의 구조적·기능적 요인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김영주, 2015).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 및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폭력의 가정적 요인이 가해행동에 미치는 원인과 영향에 대한 방안들을 검토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폭력의 개관

1)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은 그 대상이나 정도, 장소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 명확하게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현재까지도 학교폭력의 개념에 대해 학자들 간에도 의견일치가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개념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적 양상을 연구해 왔다. 폭력의 개념에는 정서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 그리고 강도, 강간과 같은 보다 심각한 범죄적 행동에 수반하는 폭력이 포함될 수 있다(장현석, 2017).

김가은(2019)은 학교폭력을 “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의도를 지닌 신체적·물리적·심리적 공격 및 폭력행동으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학생이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자기보다 약한 상대나 집단의 암묵적인 규칙을 어긴 자를 폭행, 협박, 따돌린 등에 의하여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박정옥, 조흥순(2019)은 학교폭력을 “가·피해자 일방 또는 쌍방이 학생의 신분으로써 학교 및 이와 관련된 장소에서 각종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차원의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유·무상의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상의 개념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이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를 동반하는 폭력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2) 학교폭력 관련 이론

(1) 사회학습이론

사회학습이론은 Bandura(1973)의 학교폭력의 대상이 또래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리고 간접적인 노출의 영향으로 또래 학교폭력의 가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해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이론 중의 하나이다. 이 이론을 또래 학교폭력에 적용하면 또래 폭력을 경험하는 청소년시기의 학습은 또래 폭력사건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발생하는 과정에서의 조건적 자극 현상은 또래 폭력의 행위이고, 이에 해당하는 기대반응은 피해자인 또래로부터의 반응 현상과 폭력행위를

목격하는 다른 또래들로부터의 반응현상이다. 그리고 조작적 조건화의 이론적 가정에 의하면 또래 폭력의 가해행위에 대한 기대반응이 보상을 가져오게 되면 청소년의 또래 폭행행위는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김은영, 2014).

(2) 자기통제이론

Gottfredson & Hirschi(1990)의 자기통제이론은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무감각하며, 육체적인(정신적인 것과 반대로), 위험을 감수하고, 근시안적이며, 비언저적(nonverbal)인 경향이 있다” 고 보았다. 범죄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즉각적인 만족감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여겨져 자기 통제력이 낮은 개인들에게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Schreck(1999)은 낮은 통제력을 지닌 개인은 특정한 행동이나 그로 인한 잠재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자신을 더 취약하게 하고, 피해를 입힐 위험에 노출할 특정 기회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2.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적 요인

1) 가정의 구조적 요인

(1) 가정 내의 환경

가정에서 가족관계를 통해 인간의 기본적 인성이 형성되어지고 발달해 가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 및 환경들은 가족 구성원인 청소년들의 성장과 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또는 가정불화, 학대, 방임, 가정폭력 피해경험, 경제적 빈곤 등 가정 내의 부정적인 환경은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직·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정 내의 환경은 청소년의 인성발달과 가장 밀접한 환경으로써 청소년의 정서와 행동, 사회성 발달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한편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면서 정서적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특징들이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들과 관계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 부모와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한 청소년에 비하여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기 쉽다(Salzinger, S., Feldman, R. S., Hammer, M., & Rosario, M., 1993) 우울이

나 자존감 결여로 인하여 위축된 행동양태를 나타내면서 정상적인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장현석, 2017).

이와 같이 성장기 과정에서 장기적인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 위험요소인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청소년기의 인성형성에 매우 심각한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편부모 가정 또는 경제적으로 최하위계층 가정에 속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등과 같은 가정환경의 결손으로 인하여 사회적 현상과 경제적 현상의 변화 및 지위의 감소로 인해 결국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발전으로 할수 있다.

사회통제이론의 시각에서 본다면 가정환경에서의 부모와의 유대가 약한 청소년들이 성장과정에서 이탈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가족구조의 결손은 경제적 궁핍함, 심리적 지지의 부족 등과 맞물리면서 부모와 자녀간의 긍정적인 정서적 접촉을 부족하게 만들고, 적절한 감독과 훈육이 어려워져 비행에 촉발할 수 있다(신소정, 이재모, 2014).

(2)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이중섭, 이용교(2009)은 가정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있어 빈곤은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비행이나 범죄, 학업중단, 가출 등의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고, 저소득과 열악한 주거환경은 청소년의 공격성이나 학교이탈, 약물남용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정환경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청소년 비행행위의 경험 또는 학교의 부적응 등을 초래하여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아버지가 단순 노무직이나 일용직에 종사할수록 해당 청소년은 낮은 적응능력, 부정적인 생활에의 노출, 낮은 학업능력, 학교 부적응과 같은 정서상의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송신영, 2007). 이와 같이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은 각각 개인의 생활방식과 일상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각각의 요인들이 범죄피해의 발생 요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가정의 기능적 요인

(1) 부모의 긍정적인 보호요인

학교폭력과 관련한 가정환경의 기능적 요인은 성장과정에 있어 청소년의 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와 자녀와의 유대관계, 양육방식 및 관리·감독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이들 요인은 주로 가정환경에서 부모의 보호요인과 밀접한 관계형성으로 가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평온한 집안 분위기, 부모의 정서적 사랑 또는 지지, 적절한 보호요인은 주로 자녀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올바른 사고와 통제력이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Hirsch, 2008),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학교생활 등에서 비행에 노출되더라도 쉽게 비행을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긍정적 보호요인인 정서적 지지와 애정, 관심 등은 학교폭력의 가해 행동을 조기에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부모의 부정적인 보호요인

부모의 보호요인은 항상 긍정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연구들과 사례에서 부모의 방임 및 과잉보호는 오히려 청소년기의 성장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 가정의 방임으로 폭력가정 또는 청소년기에 학대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폭력과 같은 비행행위를 넘어 중대한 문제로 발전되어 소년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보호요인은 정서적 지지와 부모의 관여도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때에는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억제요인이 될 수 있지만 부모의 보호요인의 반대로 불안정한 집안 분위기, 부모의 방임, 낮은 정서적 지지와 과잉보호는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부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가정 내에서 학대 및 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행동의 촉진요인으로 비행행위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심각한 범죄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범죄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Ⅲ. 학교폭력의 실태 및 가정적 요인 분석

1. 학교폭력의 실태

교육부에서 실시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 및 현황 결과 발표를 참고로 활용하였다. 이번 조사는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내 초등학교 4학년~고3 재학생 전체(약 410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0.7%인 약 372만 명이 참여하였다.

1)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현황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현황은 <표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어폭력 2019년도 (35.6%), 2018년도(34.7%)에 비해 소폭 증가(0.9%)하였지만, 집단따돌림은 2018년도 (17.22%)보다 2019년도(23.3%)로 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사이버 괴롭힘은 2018년도(10.8%) 보다 2019년도 (8.9%) 감소(1.9%) 되었다.

<표 1>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현황

(단위: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감
언어폭력	34.0	34.6	33.3	34.0	34.1	34.7	35.6	0.9
집단 따돌림	16.6	17.0	17.3	18.3	16.6	17.2	23.2	6.0
사이버 괴롭힘	9.1	9.3	9.2	9.1	9.8	10.8	8.9	-1.9
스토킹	9.2	11.1	12.7	10.9	12.3	11.8	8.7	-3.1
신체폭행	11.7	11.5	11.9	12.1	11.7	10.0	8.6	-1.4
금품갈취	10.0	8.0	7.2	6.8	6.4	6.4	6.3	-0.1
강제 심부름	6.1	4.7	4.2	4.3	4.0	3.9	4.9	1.0
성추행· 성폭행	3.3	3.8	4.2	4.5	5.1	5.2	3.9	-1.3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19.

학교폭력의 피해유형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학교폭력의 물리적 유형에 대해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한 결과 신체폭행¹⁾, 금품갈취²⁾, 성추행·성폭행³⁾의 비중으로 낮아지는 성과가 있었다.

2) 학교폭력 가해자 유형

학교폭력 가해자는 초·중·고 모두에서 동학교 같은 반 친구(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학교 동 학년 친구(30.1%), 동학교 타 학년(7.6%), 타 학교 학생(3.2%), 모름(2.3%), 기타(8.1%)순으로 주로 동학교 같은 반 친구와 동 학년 친구에 의해 또래 집단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학교폭력이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표 2〉 학교폭력 가해자 유형

(단위: %)

구 분	동학교 같은반	동학교 동학년	동학교 타학년	타학교 학 생	모름	기타
전체	48.7	30.1	7.6	3.2	2.3	8.1
초	49.1	29.3	8.0	2.8	2.5	8.3
중	47.2	33.0	6.7	4.5	1.4	7.2
고	47.8	31.8	5.7	4.7	1.9	8.1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19.

3) 학교폭력 피해시간

학교폭력의 피해시간의 결과를 보면 <표 3>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초·중·고 모두 주로 학교폭력이 쉬는 시간(34.4%)에 많았으며, 다음으로 점심시간(17.7%)과 하교이후(14.1%)순으로 피해가 일어난 시간으로 조사 되었다.

1) 신체폭행: (‘17년) 11.7% → (‘18년)10.0% → (‘19년) 8.6%

2) 금품갈취: (‘17년) 6.4% → (‘18년)6.4% → (‘19년)6.3%

3) 성추행·성폭행: (‘17년)5.1% → (‘18년)5.2% → (‘19년)3.9%

〈표 3〉 학교폭력 피해시간

(단위: %)

구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하교 이후	수업 시간	하교 시간	학교밖 체험	등교 시간	방과후 수업	기타
전체	34.4	17.7	14.1	8.1	7.0	4.5	3.6	3.1	7.5
초	33.5	16.9	15.3	6.7	7.8	4.9	3.8	3.6	7.6
중	38.5	20.5	10.6	11.2	4.7	3.6	2.8	1.3	6.9
고	35.0	20.2	9.1	15.8	3.6	3.0	2.8	1.9	8.6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19.

4) 학교 밖 청소년 범죄 추이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에서도 주목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표 4〉 학교 밖 청소년 범죄 추이

(단위: 건)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소년 범죄	전체	107,018	90,694	78,794	80,321	76,356	72,752	62,259
	학교 밖	37,817	40,411	34,403	36,185	32,466	29,745	25,592
	비율(%)	35.3	44.5	43.6	45.0	42.5	40.9	41.1

출처: 치안정책연구소, 2019.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소년범(만14세~18세)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5.5%였는데 2015년에 45.0%로 크게 높아진 이후, 2016년에는 42.5%, 2018년에는 41.1%를 나타내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폭력 추세와 비슷하게 ‘학교 밖 청소년’이 소년범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5년에 최고 수치를 나타낸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8년의 경우 전년대비 0.2%p 소폭증가한 상태이다(치안정책연구소, 2019)

5) 학교폭력 피해사실 신고 현황

학교폭력에 관한 인식에 관한 사항에서 주위에서 알려거나 신고(81.8%)로 학교폭

력 대처 방안의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보였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가족 보호자(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선생님 신고 26.9%과 친구 선배10.2% 순으로 응답 되었다.

〈표 5〉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알린 사람

(단위: %)

구 분	가족 보호자	선생님 신고함	친구 선배	다른사람 (기관)	117신고센터경 찰관	미신고
전체	주위에 알려거나 신고 (81,8)					
	42,2	26,9	10,2	0,3	2,2	18,2
초	45,8	24,2	8,8	0,2	2,1	18,9
중	33,2	34,4	13,0	0,4	2,1	16,9
고	25,3	37,4	18,5	0,7	3,5	14,6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19.

6) 학교폭력 피해 미신고 이유

학교폭력을 피해자가 여러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는 사항은 <표 6>과 같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4.7%)로 나타났으며, 이어 학교폭력의 피해를 신고하게 되면 보복성에 가까운 피해를 입을 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해결 하려고(25.5%)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16.5%), 해결이 안될 것 같아서(18.4%)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6〉 피해 미신고 이유

(단위: %)

구분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	스스로 해결 하려고	해결이 안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의야단 /걱정때문에	어디에 알려할지 몰라서
전 체	24.7	16.5	25.5	18.4	12.1	2.8
초	24.4	17.4	25.6	16.5	13.0	3.1
중	26.4	13.5	25.1	23.3	9.7	2.0
고	23.6	13.3	24.7	30.9	6.5	1.1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19. 8. 26.

7) 학교폭력 가해 경험 현황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의 경험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먼저 괴롭혀서 (32.1%)가 가장 높게 나왔다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장난으로⁴⁾ 각각22.3%, 18.5%로 학교폭력의 가해 이유에서 초등학교와는 다른 결과로 조사되었다.

〈표 7〉 가해경험 현황

(단위: 명, %)

가해 응답률	구분	전 체	초	중	고
	비율	0.6	1.4	0.3	0.1
	명수	22천	17,8천	3,3천	0,9천
가해 이유	먼저 괴롭혀서	29.7	32.1	19.5	18.3
	장난으로	17.7	16.9	22.3	18.5
	오해와 갈등으로	16.1	15.7	17.7	18.1
	마음에 안들어서	13.0	11.9	17.3	20.7
	다른 친구가 하나까	8.6	8.3	10.7	8.8
	회풀이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7.8	8.2	6.2	6.9
	내 힘을 보여주려고	3.6	3.7	3.0	4.0
	관심을 받고 싶어서	0.7	0.7	0.6	1.5
	친구나 선배가 시켜서	2.7	2.7	2.6	3.1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19.

8) 학교폭력 발생시 대처 행동 현황

학교폭력 발생시 대처 행동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우선 초·중·고에서 모두 학교 폭력 발생시에 학교 선생님이나 신고함에 알리겠다(29.5%)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그 다음으로 117 신고 센터·경찰관에게 알리겠다(23.0%),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17.4%)순으로 응답되었다. 이는 학교폭력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피해학생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4) 가해이유에서는 초등학교에서는 먼저 괴롭혀서(32.1%),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장난으로 (22.3%), (18.5%)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8〉 학교폭력 발생시 대처행동 현황

(단위: %)

구 분	전체	초	중	고
학교선생님이나 신고함에 알리겠다	29,5	29,4	30,4	28,8
117신고센터·경찰관에게 알리겠다	23,0	20,6	24,0	24,5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	17,4	17,3	16,4	18,6
피해를 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주겠다	14,7	17,2	14,3	12,4
때리거나 괴롭히는 친구를 말리겠다	9,0	10,1	8,5	8,4
친구나 선배(후배)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	6,4	5,4	6,4	7,3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19. 8. 26.

2. 학교폭력의 가정적 요인 분석

1) 가정의 구조적 요인 분석

(1) 가족의 구성 형태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족의 결손형태가 가해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관계형성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부모에게 미치는 가해요인은 결손 이외의 요인, 즉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가정의 기능적 요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창한, 강민완(2010)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환경의 변화와 결손이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감소를 초래함에 따라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결손여부 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른 역할과 개입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경우 부모가 자녀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따라서 자녀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결손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을 감안하면 그 영향이 부정적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2)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드물게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육비 지출에 있어 공교육비에 비해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많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을 살펴보면 결손가정에 성장한

소년범죄자들과는 달리 평범한 가정의 청소년들이거나 양부모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인 경우도 있다. 이는 가족의 환경과 형태의 현상 자체가 미치는 영향이라기보다는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 및 관리감독과 부모의 보호요인으로 관련된 것으로 부모가 가정과 자녀를 돌보는 시간 또는 사회·경제적 활동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가정의 기능적 요인 분석

(1) 부모의 낮은 정서적 지지와 방임

부모의 긍정적인 보호요인은 가해 학생의 지속적인 비행을 억제하는 수단이거나 이로 인한 분쟁 발생시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부모의 적절한 대응으로 학교폭력이 중단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부모들은 당사자인 가해 학생 대신 직접 사과와 변상 등을 통해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자녀의 지속적인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하늘, 이숙(2012)은 부모의 긍정적인 보호요인, 즉 애정 등의 정서적 지지와 적절한 감독이 학교폭력의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방안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와는 반대로 부모의 낮은 정서적 지지와 자녀에 대한 방임은 학교폭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관여에 있어서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관리·감독의 소홀, 방임, 무관심은 학교폭력 가해요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장애 요인은 결국 자녀에 대한 사랑과 정서적 지지와 관여에 상대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부모를 대신하는 기관을 포함한 관리감독자의 역할 부재가 학교폭력을 억제하는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2)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

학교폭력 사건은 심각성 여부에 따라 형사절차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경미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 학교자치위원회와 경찰의 중재로 부모 간의 화해 또는 합의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부모가 학교와 교사 그리고 사건에 지나치게 관여하거나 피해자의 부모 중 일부는 강한

피해의식으로 인하여 과도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폭력 사건의 대부분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반성 및 진심어린 사과보다는 부모의 개입으로 인한 대리 해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처리과정에서 행여나 자녀들이 더 큰 상처를 받는 것을 우려하고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기 급급한 부모들의 개입으로 인하여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 해소하기 위한 가해 당사자들의 제재절차가 생략되고 있기 때문이다(김영주, 2015).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박탈하고 폭력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인성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도모하기 때문에 과잉보호의 경우 가해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긍정적인 자기통제력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3) 가정 내의 부정적인 환경

청소년들이 폭력에 노출되는 최초의 환경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경험이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있거나 성장과정에서 신체적 체벌이나 언어폭력 등의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폭력과 같은 비행, 나아가 범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가정폭력은 잠재적·반복적·상습적이고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하여 묵인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 장현석(2017)의 연구에서 부모의 학대는 자녀들의 학교폭력 피해에 영향을 주고 학교폭력 피해는 또 다른 학교폭력 피해를 부르는 악순환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인 학생들이 잠재적으로 가정폭력의 피해자임을 상기시켜 준다고 볼 수 있다.

Ⅵ. 가정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 요소인 가정적 요인은 사회구조상 경찰의 개입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특히, 가정환경의

결혼 가정에 대해 부모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책 방안에는 더욱 한계가 따른다. 가정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경찰 대응 방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학교 내의 고위험군 가해학생을 비롯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학부모 참여 도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학교폭력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학부모 참여 도입 방안

1) 올바른 언어습관 형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의 전환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육은 언어폭력에 대한 범죄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중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올바른 교육으로 언어습관 형성 및 고학년으로 진학할수록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을 위한 기술능력 향상을 강화해야 한다.

2) 직장 내 학교폭력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추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 자녀관계 등과 같은 자녀의 양육방식과 학교에 개입방법 및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중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참여의사가 있는 부모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보호요인과 관리감독 역할 강화 및 인성교육 등의 부재를 해소를 위해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직장 내 학교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기관 및 기업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법률 규정으로 의무화하여 경찰은 학교폭력에 대한 원인 이해와 대처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고 나아가 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녀상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즉, 기관 및 기업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윤리교육 등과 같은 교육프로그램과 더불어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병행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김영주, 2015).

3)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학부모 참여 의무화 추진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은 부모의 방임 및 인성교육 미흡 등 가정교육의 부재로 인

한 부정적인 영향은 선행연구 등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가정적 요인해소를 위한 부모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이다. 특히, 상습적인 가해학생의 경우 부모의 과잉개입으로 인하여 가해 학생의 진심어린 반성과 개선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학교폭력의 처리절차에서도 부모들 간의 사건 해결과 화해로 인하여 정작 가해 당사자인 학생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기회를 박탈하여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사안의 해결을 부모가 대신 처리함에 따라 당사자의 진정한 반성의 기회가 적어져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해학생에게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부모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경찰의 고위험군 학생의 사후관리 및 사건 처리절차의 공정성 강화

1) 경찰의 고위험군 학생의 사후관리 강화

고위험군 학생들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관련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차원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 가해학생을 접촉하여 상담을 하는 경우 학생의 고민을 들어주는 정도의 면담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전문적인 상담기법이나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상담에 집중하고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습득하기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특히, <표 4>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의 폭력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선도 및 재범 방지 프로그램의 내실화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치안정책연구소, 2019).

2) 학교폭력 사건의 불분명한 사안에 대한 경찰의 중립성 확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분쟁조정 및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학교전담경찰관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학교폭력 사건들은 가해 학생들이 학생부기록에 대한

부담감으로 피해자의 요구에 따르는 부당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부모들이 선제적으로 분쟁조정에 개입하여 조기에 마무리 짓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학교전담경찰관은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학교의 사건은폐, 축소, 부적절한 합의 및 조정의 유혹 등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판단을 할수 있는 조력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및 내실화

2012년 6월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제도는 현재까지 경찰과 학교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발생원인의 근절 대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는 청소년·교육·심리·상담·아동복지학과 전공자를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경력 채용하는 등 전문성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2017년 현재 201명이 일선 경찰서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경찰청, 2018).

2019년 현재 서울경찰청 135명, 경기남부경찰청 166명, 부산경찰청 65명 등 총 1,138명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학교전담경찰관들의 주요 역할은 예방활동을 비롯하여 폭력서를 파악 및 해체, 117신고 처리 등, 자치위원회 참석, 사후관리, 위기청소년 등이다. 여기서 사후관리 차원에서는 피해자 대상 추가피해 방지 및 사안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가해자 대상 선도프로그램·선도심사위원회 연계하여 사후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제31조2(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⁵⁾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

5) 제31조의2(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①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의6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한다)을 둘 경우에는 학생 상담 관련 학위나 자격증 소지 여부, 학생지도 경력 등 학교폭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예방활동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3.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4.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활동을 비롯하여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수집, 학교폭력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와 함께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맡도록 명문화되었다(장응혁, 최대현, 2019).

한편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을 대할 때 부모로부터의 학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하되 뚜렷한 징후가 있으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대두된다(장현석, 2017). 이러한 가운데 학교전담경찰관의 문제점으로 담당업무의 불명확화, 실질적 선발·교육 및 예산·인력부족,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컨트롤타워 부재, 학교폭력 가해자 처리 시 경찰의 이원적 구조 등이 지적되고 있다(김봉수, 추봉조, 2017).

V. 결론

교육부 및 경찰청의 학교폭력 피해 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 양상이 예전과는 달리 교묘하고 비 노출적인 형태로 지속되거나 성적 수치심, 괴롭힘, 강요행위 등의 행태가 날로 진화하는 특성과 더불어 나아가 성인범죄로 발전 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원인파악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한편, 가정의 기능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장소로 청소년기의 이성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앞서 학교폭력의 실태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중학교 1학년에서 학교폭력이 높게 집중되는 발생빈도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또래 및 서열화의 형성과 사춘기로 시작되는 과도기적 시점에서 학교 내 관리감독자 부재 및 고학년으로 진입할수록 많은 시간을 가정 밖에서 보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경우 부모의 관리감독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점 등이 학교폭력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표 3>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의 피해시간은 주로 쉬는 시간을 비롯하여 점심시간, 하교

③ 학교전담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18. 12. 31.]

이후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는 물론 부모, 지역사회 등이 협력적인 네트워크로 구성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학교폭력의 발생의 가해자를 중심으로 하는 요인들은 주로 가정적인 환경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에 대한 원인관계가 분명하더라도 정부차원에서 가정 문제에 정책적 개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한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정환경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부모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가정에서의 바른 언어습관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직장 내 학교폭력예방 교육 프로그램 도입, 경찰의 체험 형 교육으로의 개선과 학교폭력의 문제의 처리에 있어 절차상 공정성이 강화하는 방안 마련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교육적 대안과 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앞서 지적한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학교전담경찰관의 근무 연수 강화 및 시험제도의 개선을 비롯하여 인력증원, 학교전담경찰 업무의 행동지침 매뉴얼 제정, 학교폭력 가해자 처리시 경찰에게 수사종결권 부여⁶⁾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 경찰관 출신인 학교전담경찰관의 경우 비행 등 범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에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장응혁, 최대현, 2019).

경찰은 범죄와 범죄피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고위험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를 유기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경찰의 대응으로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학교폭력을 예방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차원에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역시민단체, 청소년육성회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며,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폭력 문화 개선 활동이 전개 되어야 한다.

6) 현재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26조 이하에는 경찰은 소년범죄 수사에 대한 종결권이 없고, 다만 「경찰청 소년업무규칙」에 근거하여 경미한 사건 중 초범인 경우에 한하여 선도심사와 상담교육 이수를 진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경찰청 (2018). 경찰백서.
- 교육부 (2019).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8.26).
- 기광도 (2010). 사회계층과 범죄피해자간 관계분석: 저연령아동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18(2), pp.357-374.
- 김가은 (2019).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피해 중첩성에 대한 경로분석.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선, 곽대경 (2017).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청소년 시기의 폭력피해 경험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2).
- 김봉수, 추봉조 (2017).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경찰제도의 개선방안-대구·경북지역 학교폭력 예방업무 경찰의 델파이 면담조사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69.
- 김영주 (2015).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정적 요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보고서, pp.1-54.
- 김은영 (2014).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폭력피해 및 가정폭력 목격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1(1), pp.3-4.
- 김주한 (2018). 학교경찰관 인식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및 선도 방안에 관한 연구: 학교경찰관 인식 진단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5(2).
- 박정욱, 조홍순 (20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 송신영 (2007).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및 양육행동, 아동의 친구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소정, 이재모 (2014).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대응방향. 소년보호연구, 24.
- 심희옥 (2008). 부모 양육행동과 또래 괴롭힘에 관한 횡단 및 단기종단연구: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아동학회 세미나자료집.
- 유순덕 (2018).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7(3).
- 이대권, 엄유진, 김신혜 (2020).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가 범죄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재학중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10호.

- 이중섭, 이용교 (2009).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7), pp.16-20.
- 이창한, 강민완 (2010). 결손가정의 기능적 특성과 적응유연성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 12(1), pp.175-200.
- 이하늘, 이숙 (2012).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지지와 정서조절능력 및 자기효능감의 경로분석. 대한가정학회지, 50(2), pp.65-74.
- 이승권, 김하영 (2019). 중학생의 교우관계 및 대인관계가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 과학회지, 28(4).
- 이정관 (2017).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과 가정교육의 필요성 연구. 신학과실천, 54.
- 장웅혁, 최대현 (2019).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서 경찰개입 개선방안. 경찰학논총, 14(1).
- 장현석 (2017).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 학교폭력(양파) 피해에 미치는 영향-중단자료를 이용한 피해·가해 중점 맥락의 이해. 한국범죄심리연구, 13(1), pp.232-247.
- 치안정책연구소 (2020). 치안전망 2020.
- 치안정책연구소 (2019). 치안전망 2019.

2. 외국문헌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Hirschi, T., & Gottfredson, M. R. (2008). Critiquing the critics: The authors respond. *Out of Control: Assess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217-231.
- Salzinger, S., Feldman, R. S., Hammer, M., & Rosario, M. (1993). The effects of physical abuse on children's soci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Vol.64 No.1. 169-187.
- Schreck, C. J. (1999). Criminal victimization and low self-control: An extension and test of a general theory of crime. *Justice Quarterly*, 16(3): pp.633-654.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Domestic Factors
on the Violent Behavior of School Violence
– Based on the police's countermeasures –**

Kim, Sang Su^{*}

In this study,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chool violence every year was reviewed, and the effects of domestic factors on school violence's behavior were identified, and preventive measures were presented around the police's countermeasures.

Problems that arise in parents as one way to address household environment factors require measures such as improving education programs for proper language habits at home, making it mandatory for parents and children to participate in education programs, introducing in-house schoo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programs for dual-income couples, improving police experience-type education and strengthening procedural fairness in dealing with school violence issu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redefine educational alternatives and the role of police.

In particular, measures to improve the school police officer system, which plays a pivotal role in school violence, include strengthening the number of years of service for school police officers and improving the test system, increasing manpower, enacting a manual for action guidelines for school police affairs, and granting police the right to end investigations when dealing with perpetrators of school violence. In addition, for school police officers, who used to be ordinary police officers, they have expertise in handling crimes such as

^{*} Osan University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Professor(The 1st Author)

flying, but the situation in which they cannot stably perform their work due to frequent personnel changes should be urgently improved.

Key Words: school violence, youth violence, factors affecting school violence, state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